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ence
22(4): 679~688, 2011

저소득가정 유아의 보육시설 적응에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교사-유아관계가 미치는 영향

김 영 희
한경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 on Young Children's Adjustment to Child-Care Centers: Focused on Low-Income Families

Kim, Young Hee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Ansung, Korea

ABSTRACT

Using data from an ongoing study of 170 children aged 4-6 years in low-income families, this study tests how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 influences the adjustment to child-care centers of young children.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s were measured by the mothers of surveyed children, while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adjustment were rated by teachers. Measurements were recorded from using the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Crase et al. 1987),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Pianta et al. 1995) and the Adjustment to Child-care Centers Scale(Lee 2004).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using the SPSS Program. Results indicate that mothers' parenting behaviors in the low-income families controlled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one area of early school adjustment, learning readiness. In other words, mothers who are more involved and demonstrate supportive parenting, have children with better learning readiness.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is strongly related to all areas of children's adjustment. The interaction effect of parenting behaviors and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on children's learning readiness is observed. Thes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he teacher-child closeness as well as the quality of parenting behaviors during the preschool period for the low-income family in improving early school adjustment.

Key words: mothers' parenting behavior, teacher-child relationship, adjustment of child-care center

접수일: 2011년 11월 7일 심사일: 2011년 11월 9일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11일
Corresponding Author: Kim, Young Hee Tel: 82-31-670-5234 Fax: 82-31-678-4974
e-mail: ykim@hknu.ac.kr

I. 서론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들은 2000년 68만 6천명에서 2009년 117만 5천여 명으로 크게 늘어나(2010년 보건복지 통계연보), 점점 가정밖 보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유아들이 하루 중 오랜 시간을 보육시설에서 지내기 때문에 또래친구나 교사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기대되는 요구와 도전에 직면하면서 심리적 불안과 긴장 등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유아기의 적응상의 문제들은 이후의 심리적 적응에 관련될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학교참여 및 학업수행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육시설에서 유아의 적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이진숙 2004; DuBois et al. 1994; Ladd, Kochenderger & Coleman 1996).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을 측정하면서 유치원 초기적응(문은식 2007; 오재연 2006), 사회적 적응(신유림 · 윤수정 2009; 안선희 2002), 외현화 또는 내면화 문제행동(김민희 · 문혁준 2007; 김선희 2009)들을 다루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적응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학령기의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위해 필요한 기술로 유아기 학습행동이 강조되면서, 보육시설에서의 적응을 측정할 때 문해, 수학활동 등 학습을 위한 준비를 하나의 요인으로 포함시키는 연구(김영희 등 2008; 이진숙 2004)들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습준비도를 취학전 유아의 인지발달, 교실에의 적응에 관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한 외국의 연구(Parker et al. 1999)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적응을 행동적, 사회정서적 측면 뿐 아니라 학업적 측면으로 파악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태도, 보육활동 참여 및 학습준비 등으로 보육시설 적응을 구성하고, 각 적응영역에 대하여 유아가 어느 정도 적응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요인들이 무엇인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유아 및 아동의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요인들 가운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Bornstein 1996). 그런데, 저소득가정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반드시 부정적 양육과 직결된다고 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저소득이 다른 위험요인과 연관되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을 보고하였다. 저소득 가정의 어머니들이 일반가정 어머니들에 비해 유아기 자녀와 온정적 상호작용 정도가 낮으며(김정미 · 곽금주 2007), 책읽기 등 문해활동 수준이 대체로 저조하다는 것이다(김명순 등 2010; 장영은 등 2008; 황혜정 2011).

또한, 선행연구들은 가족과정 모델(Family process model)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McLoyd & Wilson 1991), 저소득 가정 어머니의 심리적 부담감이 부정적 양육행동을 나타내고 이를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이 많아지거나, 학교적응이 저하될 수 있다(송신영 · 박성연 2008; 이은해 등 2010)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가족의 소득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지지적일때(민하영 · 권기남 2004), 자녀교육에 대한 참여수준이 높을 때(김영희 2001)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 연구들의 분석대상은 초등학교 아동이나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취학전 유아를 둔 저소득층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살펴본 결과 양육의 질이 낮을 때 자녀의 학습준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한 Jackson 등(2000)의 연구도 있지만, 저소득층 취학전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하겠다.

한편, 선행연구들은 애착의 관점에서 교사-유아관계를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이러한 특성이 유아의 보육시설 적응에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Baker 2006; Birch & Ladd 1997; O' Connor & McCartney 2007; Pianta 1994). 보육교사가 수용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주면 유아는 자신감 있게 자신을 유능하다고 생각하게 되며, 교사를 안전기지로 삼아 새로운 사회적 세계를 탐구하고 학습한다. 유아가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 안정감을 느낄 때 보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집중하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교사와 마찰을 많이 경험하는 경우 분노, 불안감 등 보육시설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증가하며 결국 학업수행이나 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Birch 와 Ladd(1997)에 의하면 교사-유아관계는 아동중기까지 비교적 안정되게 나타나므로 초기에 온정적이고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국내의 연구(강정원 · 김순자 2006; 김선희 2009; 신유림 · 윤수정 2009; 안선희 2002; 이진숙 2004)에서도 교사와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은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보육시설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유아교육 환경에 동시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환경에서 유아를 돌보는 어머니 및 교사의 행동특성, 즉, 온정적이며 지지적인 어머니 양육행동과 교사-유아의 친밀한 관계가 유아의 보육시설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자녀간 관계의 질이 부모 외 사회적 관계 즉, 자녀가 교사와 형성하는 관계의 질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으며(안선희 2002), 교사와 유아간 친밀한 관계는 어머니-유아관계가 적응을 돕는 역할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Pianta et al. 1997).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유아의 적응에 미치는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이 교사-유아관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즉, 저소득층 어머니 양육행동의 유아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교사-유아관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말하자면,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과 교사와 유아간 친밀한 관계가 합해졌을 때 유아의 적응정도가 더욱 상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이러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저소득 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보육시설 적응에 미치는 영향만 고려한다면 양육행동의 질이 낮아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낮은 수준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라 할지라도 교사-유아관계가 좋게 유지되고 있다면 앞에서 언급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교사-유아관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저소득층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변화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양육행동, 교사-유아관계와 보육시설 적응과의 연관성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어 이에 관한 추가적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서 성과 연령(이진숙 2004; 황혜정 2011), 어머니의 특성으로서 학력 및 취업여부(김민희 · 문혁준 2007; 김영희 등 2008)가 보육시설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를 감안하여 유아,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후, 저소득층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보육시설 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교사-유아관계가 유아의 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저소득층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질과 유아의 적응 사이에 작용하는 교사-유아관계의 조절효과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위에서 설명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른 본 연구의 주요 관점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저소득가정 유아의 보육시설 적응에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교사-유아관계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저소득가정 유아의 보육시설 적응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은 교사-유아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 200%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을 감안하여 2009년 정부에서 제시한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33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월평균 소득 265만원 이하 가정을 저소득 가정으로 정의하였다. 이 기준에 맞추

어,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어린이집 7곳에 다니는 저소득 가정 유아 170명과 그들의 어머니 170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유아의 지역적 특성을 보육시설 소재지로 살펴보면 서울 12.4%, 경기도 이천 8.8%, 안성 78.8%의 분포를 보였다. 전체 유아 170명의 연령은 평균 72.36개월 이었으며, 남아 85명(50.0%), 여아 85명(50.0%)이다. 조사대상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은 평균 35.56세이며, 학력은 고졸이 60.9%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다음이 전문대졸 26.3%, 대졸 10.3%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어머니가 46.2%로 비취업자(53.8%)보다 약간 적었다.

한편, 교사용 설문지에 응답한 유아담당 교사들은 총 18명이었으며, 그들의 학력은 대부분(76.2%) 전문대학 이상 졸업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에 재직한 근무년수는 2년 8개월부터 12년 10개월까지 범위가 컸으며 7년 미만 근무자가 7명 그리고 7년 이상의 경우 11명으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의 구성과 내용

1) 유아의 보육시설 적응

보육시설에서의 적응 척도는 교사 평정용으로 학교적응 척도(Teacher Rating Scale of School Adjustment, Birch & Ladd 1997)를 참고하여 이진숙(2004)이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보육시설에 대한 태도 4문항, 보육활동참여 6문항, 학습준비 7문항 등 3개 영역의 총 17문항을 선정하였으며, 보육시설 교사들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보육시설에 대한 태도란 유아가 어린이집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긍정적 정서를 알아보는 것이며, 활동참여는 교사의 지시 및 요구에 잘 따르고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또는 협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학습준비란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어느 정도 언어 및 문해활동, 수학 활동 등 과제를 이해하고 집중해서 할 수 있는가를 뜻한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시설에 적응을 잘함을 의미한다. 3가지 영역의 신뢰도 계수는 보육시설에 대한 태도 α=0.82, 활동참여 α=0.88, 학습준비 α=0.87이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other Form(Crase et al. 1987)을 토대로 번안, 수정하여 김경미와 안선희(2010)가 사용한 것을 참조하여 문항을 작성하였다. 양육행동 척도(김경미 · 안선희 2010)중 합리적 지도, 애정성 및 반응성의 5문항을 선정하였다. 각 문항별 응답형식은 4단계 평정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이 온정적이며 자녀활동에 더 반응적 행동을 보이고 지지적임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 α값이 0.68이다.

3) 교사-유아관계

교사-유아관계척도(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Pianta 1999)는 친밀감, 갈등, 의존성 등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와 유아간 관계의 특성을 교사가 어떻게 지각하는지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하위요인 중 의존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이진숙 2001; 김영희 등 2008에서 재인용)가 뚜렷하지 않아 교사-유아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의존성을 제외하였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유아간 긍적적 관계의 정도와 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친밀감 요인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급내 개별유아와 애정어린 온화하고 개방적 의사소통 정도를 알아보는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리커트식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유아 관계를 더 친밀한 것으로 지각한다는 의미이다. 문항들간 내적 합치도 Cronbach α는 .75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조사의 자료는 비확률 표집인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된 서울 1곳,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 6곳을 본 연구자와 훈련된 대학생 2명이 방문하여 수집하였다. 조사는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졌으며, 교사용 질문지는 먼저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들이 담당교사에게 설문내용 및 절차를

설명한 후, 담당교사가 보육시설에서 유아의 적응정도 및 교사와의 관계를 평가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는 설문을 실시한 유아의 각 가정으로 배부되었으며, 1주일 후 연구보조원이 각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교사용 및 어머니용 질문지를 수거하였다. 360부의 질문지 중 교사용 및 어머니용 질문지 각각 323부가 회수되었으며 가정소득 변수를 점검하여 최종 17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progra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분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사-유아관계의 조절효과는 어머니 양육행동 변수와 교사-유아관계 변수와의 상호작용 유의도에 의해 검증되었고, 상호작용의 패턴은 그림을 통해 살펴보았다.

Ⅲ. 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수들의 일반적 경향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살펴본 측정변수들의 분포는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저소득층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평균 16.40점으로 온정적이며 자녀와의 활동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지지적으로 참여하는 등 행동수준이 4점 척도에서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의 자료와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본 연구 대상자인 유아기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질이 대체로 양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에서 유아와 교사간 관계 또한 평균 13.11점으로 높은 정도로 친밀한 관계임을 알 수 있으며, 보육시설에서의 적응을 측정하였을 때 보육시설에 대한 정서적 태도 13.46점, 보육활동 참여 18.91점 그리고 학습활동 준비는 22.86점으로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Item	Range	Mean	SD
Parenting behaviors		5	9-20	16.40	2.23
Teacher-child relationship		4	4-16	13.11	2.15
Adjustment to child-care center	attitude	4	6-16	13.46	2.28
	activity participation	6	7-24	18.91	3.52
	learning readiness	7	11-28	22.86	3.83

2. 저소득 가정 유아의 보육시설 적응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 및 교사-유아관계의 영향

연구문제1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아 및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저소득층 어머니 양육행동과 교사-유아관계가 유아의 보육시설 적응을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보육시설 적응은 보육시설 태도, 활동참여 및 학습준비로 구분하였으며, 1단계에 유아 및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 2단계에는 어머니 양육행동과 교사-유아관계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Table 2에 의하면, 첫 번째 종속변수인 보육시설 태도에는 1단계에서 유아의 성 및 연령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남아보다는 여아가 그리고 유아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육시설에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유아 및 어머니 개인적 특성을 통제했을 때 교사-유아관계(β=.63, p<.0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단계보다 크게 증가한 47%였다.

두 번째 종속변수인 활동참여에는 1단계에서 유아의 연령이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2단계에서 교사-유아관계(β=.63, p<.001)가 중요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1단계보다 38% 증가한 43%였다. 세 번째 종속변수인 저소득 가정 유아의 학습준비는 1단계에서 유아의 성 및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2단계에서 교사-유아관계(β=.54, p<.001), 어머니의 양육행동(β=.16, p<.01), 어머니 학력(β=.14, p<.05), 유아의 연령(β=.14, p<.05), 성(β=.13, p<.05)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설명력은 1단계보다 30% 증가한 43%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저소득 가정 유아의 보육시설 적응에 교사-유아 관계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가 보육교사와 친밀감을 형성하여 긍정적 관계를 유지할수록 보육시설을 더

좋아하고 교사의 지시에 따라 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문해 및 수학활동 등 과제를 더 잘 이해하고 흥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3. 저소득층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보육시설 적응간 관계에서 교사-유아관계의 조절효과

연구문제 2인 저소득층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보육시설 적응간 관계에서 교사-유아관계가 조절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보육시설 적응의 3개 하위영역 중 학습준비에만 어머니 양육행동(β=.16, p<.01)이 주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양육행동과 교사-유아관계의 상호작용 효과는 학습준비에 대해서만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변인들간 상관계수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독립변인들 간 상관계수 .17이하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통제변인, 어머니 양육행동과 교사-유아관계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 어머니 양육행동과 교사-유아관계의 상호작용항

Table 2.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 on young childrens' adjustment to child-care centers in low-income families

	Attitude about centers		Activity participation		Learning readiness	
	step1(β)	step2(β)	step1(β)	step2(β)	step1(β)	step2(β)
Sex(girl=1)	.25***	.10	.07	-.08	.25***	.13*
Age	.17*	.06	.20*	.10	.22**	.14*
Mother's educational level	.05	.06	.08	.09	.13	.14*
Job(employed=1)	.13	.05	.07	.00	.13	.08
Parenting behaviors		.04		.10		.16**
Teacher-child relationship		.63***		.63***		.54***
R^2	.10	.47	.05	.43	.13	.43
Δ R^2		.37		.38		.30
F	3.42***	22.15***	2.00*	18.98***	5.75***	18.96***

*p<.05, **p<.01, ***p<.001

Table 3. Estimation results of young children's learning readiness in low-income families

	Learning readiness	
	step1(β)	step2(β)
Sex(girl=1)	.13***	.13*
Age	.14*	.14*
Mother's educational level	.14*	.15*
Job(employed=1)	.08	.07
Parenting behaviors	.16**	.15*
Teacher-child relationship	.54***	.54***
Parenting behaviors × teacher-child relationship		.14*
R^2	.43	.45
Δ R^2		.02
F	18.96***	17.41***

*p<.05, ** p<.01, *** p<.001

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시 독립변인의 곱으로 만들어진 상호작용 때문에 발생되는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독립변인 값에서 각 독립변인의 평균값을 뺀 센터링 값(박광배 2003)을 이용해 상호작용항 값을 구한 후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

Table 3에 의하면 보육시설 적응의 하위요인인 학습준비에 대해 어머니 양육행동과 교사-유아관계의 상호작용 항이 추가되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β=.14, p<.05)를 나타냈다. 즉, 1단계에서 교사-유아관계는 어머니 양육행동과 함께 학습준비를 4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 상호작용 항이 추가되었을 때 설명력은 2% 유의하게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가정 유아의 학습준비에 미치는 어머니 양육행동 질의 영향을 교사-유아관계가 조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머니 양육행동의 질과 교사-유아관계 점수를 평균이상 집단과 평균 미만 집단으로 구분하여 총 4개 집단 간의 학습준비 점수를 비교하였다. 교사-유아관계의 조절효과는 Fig. 1에서 두 직선의 기울기의 차이로 나타나며, 두 직선의 기울기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질 상승에 따른 유아의 학습준비 증가를 나타낸다. 저소득가정 유아와 교사간 관계가 덜 친밀할 때 어머니의 온정적이며 지지적 양육행동 정도가 높아져도 학습준비는 낮은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유아 교사간 관계가 더 친밀할 때 긍정적 양육행동 정도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학습준비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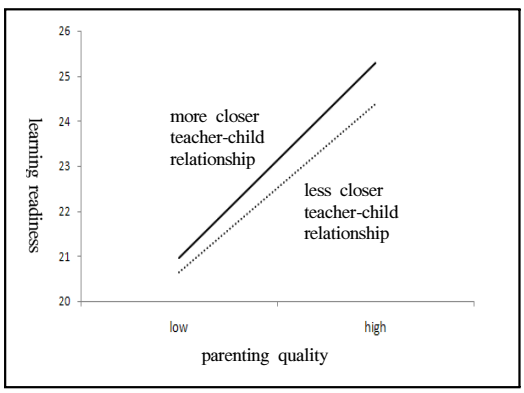

Fig. 1. Interaction effects of the quality of parenting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 on young children's learning readiness in low-income families

IV. 논의 및 결론

유아기에 경험하는 보육시설에서의 적응이 이후의 성공적 발달 및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적응 관련요인들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육시설 적응을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한 후 각 적응의 유형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 및 교사-유아관계의 영향을 알아보고, 어머니 양육행동의 질과 유아의 적응간의 관계가 교사-유아관계에 의해 달라지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4-6세 저소득가정 유아 17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의 요약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가정 유아와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보육시설 적응 중 하위영역인 학습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어머니-자녀관계와 유치원 적응간의 관련성을 지적한 선행연구(안선희 2002)와 일치하며, 저소득 가정의 부모행동의 질(Jackson et al. 2000)이나 가정문해환경(장영은 등 2008)이 유아의 어휘 및 읽기 능력 같은 문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난 선행연구와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그 전과 비교하여 실제 빈곤아동비율이 두 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이은해 등 2010),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아동복지 차원에서 유아기에 경험하는 보육시설 적응이 매우 중요함을 상기해 볼 때, 이러한 연구결과는 저소득층 유아의 초기 학습수행을 위하여 어머니의 지지적이며 참여적인 양육행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활성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미국의 Head Start Program에서 부모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저소득층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긍정적 방향으로 진전되었다고 보고하였다(이은해 등 2010에서 재인용; Baydar, Reid & Webster-Stratton 2003).

특히, 유아교육 현장에서 저소득 가정의 경우 생활여건이 열악하거나 맞벌이 비율이 높은 등의 이유로 부모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나,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참여 정도를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부모참여 활동을 통해 유아기 자녀의 문해발달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태도나 문해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일(장영은 등 2008), 교사와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의 발달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해 주는 일 등이 부모-교사 간 공유활동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참여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저소득 가정 유아 및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교사-유아 관계가 보육시설 적응의 전 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의 관점에서 교사-유아관계가 친밀하고 긍정적일수록 유아는 교사에게 신뢰감을 갖고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보육시설에서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유아관계와 유아의 적응간 유의한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신유림 · 윤수정 2009; 안선희 2002; 이진숙 2004; Birch & Ladd 1997; Pianta 1994)과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보육교사와 애정적인 관계를 맺은 유아가 또래와도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연구결과(이진숙 2004)를 주목해 볼 때 교사들은 유아의 우호적 또래관계 및 적응을 돕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사-유아관계와 달리 저소득층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적응 하위영역 중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태도 및 활동참여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작성, 보고하는 방식으로 교사-유아관계와 보육시설 적응 모두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두 변수간 관계가 어머니가 보고한 양육행동과 보육시설 적응간 관계보다 더욱 밀접하게 나타난 것으로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선행연구(이진숙 2004; Pianta & Steinberg 1992)에서도 유아의 발달적 성취와 학교적응을 예측하는데 있어 어머니-유아 애착관계보다 교사-유아 관계가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한다는 지적이 있다. 추후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 특성을 다측면적으로 측정하여 자녀 연령별 세부적으로 적응에 관한 영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보육시설 적응에 미치는 요인으로 유아 및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였으나, 선행연구들(오경희 · 신유림 2010; 천향숙 · 조은진 2011)에 의하면 교사의 인구학적 또는 심리적 특성 또한 유아의 적응을 설명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유아 및 어머니의 특성 뿐 아니라 교사의 개인적 특성, 보육시설의 환경적 특성을 포함하여 관련 변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저소득 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 관련변인들을 탐색하는 작업이 계속 축적되어야 하리라 본다.

셋째, 저소득 가정 유아의 교사와의 관계는 보육시설 적응 중 학습준비와 어머니 양육행동 간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말하자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학습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양육행동의 질이 높아지면 학습준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육행동의 이러한 효과는 교사-유아관계에 의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교사-유아간 관계가 덜 친밀한 경우 양육행동 질의 높고 낮음이 유아의 학습준비에 적은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만 교사-유아관계가 더 친밀한 경우 양육행동 질의 높고 낮음에 따라 학습준비에 보다 큰 정도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소득가정 유아의 학령기 초기 학습능력 준비를 위하여 어머니의 온정적이며 지지적인 양육행동이 유익하며 더욱이 보다 나은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유아와 교사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취학전 시기에 특별한 교재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유아의 경우 교사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보다 효과적인 학습준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교사의 관심과 지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이 필요하다. 더불어 교사-유아간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교사교육 및 연수프로그램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적응을 사회정서적 적응이외에 학습준비를 포함시켜 측정하였는데, 유아의 보육시설에서의 적응정도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하위영역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보육시설 적응에 대한 자료를 보육교사를 통해 수집하였기 때문에 유아의 반응을 측정하는데 교사의 선입견 등이 반영될 수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모가 지각한 평가를 이용하거나 교사의 평가 또한 관찰, 포트폴리오식 측정 등을 병행하는 등 측정방법의 타당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교사-유아관계에 대한 평가를 종전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교사를 평가자로 하였으나, 관계의 두 당사자 중 하나인 유아의 지각이 간과되고 교사의 지각만이 반영된 일방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교사-유아관계에 대한 정보 제공자인 교사와 유아의 지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연구결과(신유림 · 윤수정 2009)도 있으므로 추후 교사지각과 유아지각이 통합된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셋째, 횡단적 자료를 가지고 보육시설 적응의 과정상의 개념을 측정하거나 변인들 간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본다. 패널자료의 구축과 활용이 향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통해 저소득 가정에서 취학전 시기 아동의 보육시설 적응을 높이는데 필요한 변인들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저소득 가정 유아의 발달 및 적응을 돕는 지원체계가 계속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강정원 · 김순자(2006)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 교사의 교수적 스트레스 및 교사-유아관계. 아동학회지 27(1), 17-30.

김경미 · 안선희(2010)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가정환경과 유아의 학습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8(1), 15-26.

김명순 · 김길숙 · 손승희 · 유정은 · 이민주 · 이윤선 · 조향권 · 한찬희(2010) 저소득 · 일반가정 영유아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관련 놀잇감 및 부모-자녀 관계 관련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31(4), 61-74.

김민희 · 문혁준(2007)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교육 · 보육기관에서의 사회적 적응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9), 27-36.

김선희(2009) 유아의 행동문제에 대한 유아의 기질과 교사-유아관계의 영향. 유아교육연구 29(5), 203-224.

김영희(2001) 저소득층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와 자녀의 학교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9(1), 179-190.

김영희 · 강기숙 · 한세영(2008)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교사-유아관계가 유아의 보육시설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5), 73-86.

김정미 · 곽금주(2007) 취학전 빈곤아동에 대한 부모, 가정환경자극, 사회적 지원의 영향력 탐색. 아동학회지 28(4), 305-317.

문은식(2007) 어머니 양육태도와 유아의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8(4), 145-154.

민하영 · 권기남(2004)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 아동학회지 25(2), 81-92.

박광배(2003) 변량분석과 회귀분석. 서울: 학지사.

송신영 · 박성연(2008)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 심리적복지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구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5), 19-33.

신유림 · 윤수정(2009) 교사-유아관계와 유아의 사회적 행동특성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련성. 유아교육연구 29(5), 5-19.

안선희(2002) 유아의 어머니, 교사, 또래와의 관계와 유치원 적응. 미래교육학회지 9(3), 163-180.

오경희 · 신유림(2010) 유아-교사의 갈등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및 교사변인. 유아 교육연구 30(2), 339-356.

오재연(2006) 시간경과에 따른 유아의 유치원 생활 적응 행동 연구. 아동학회지 27(2), 71-84.

이은해 · 이정림 · 김명순 · 전혜정(2010) 저소득 아동의 초기학교적응과 학업수행에 관한 종단적 연구. 아동학회지 31(1), 65-82.

이정윤 · 이경아(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16(2), 261-276.

이진숙(2004) 유아의 어머니, 교사, 또래와의 관계와 보육시설 적응간의 관련성. 열린유아교육연구 12(2), 217-235.

장영은 · 이숙정 · 이강이(2008) 어머니의 책읽기와 유아교사의 민감성 및 수용성이 저소득 가정 유아의 어휘력과 수리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1), 117-129.

천향숙 · 조은진(2011) 교사와 유아가 지각하는 교사-유아관계 및 관련변인 분석. 아동학회지 32(4),

167-183.
최지현 · 박혜원(2010) 가정환경 변인 및 아동개인 특성이 취학전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1), 113-124.
황혜정(2011) 시소와 그네 교육중재 프로그램이 저소득가정 유아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 학회지 32(4), 185-202.
2010년 보건복지 통계연보. 보건복지부.
Baker JA(2006) Contributions of teacher-child relationship to positive school adjustment during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4(3), 211-229.
Birch SH, Ladd GW(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61-79.
Bornstein P(1996) Family and parenting behaviors predicting middle school adjustment. Family Relations 45(4), 415-427.
Crase SP, Clark SC, Pease D (1987)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anual. Ames, IA: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c.
DuBois, David L, Eitel, Susan K, Robert D (1994)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6, 405-414.
Jackson AP, Brooks-Gunn J, Huang C, Glassman M(2000) Single mothers in low-wage jobs: Financial strain, parenting and preschoolers' outcome. Child Development 71(5), 1409-1423.
Ladd GW, Kochenderfer BJ, Coleman CC(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103-1118.
McLoyd VC, Wilson L(1991) The strain of living poor: Parenting, social support and child mental health. In AC Huston(Ed.), Children in poverty: Child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pp. 105-135) NY: Cambridge Univ. Press.
O' Connor E, McCartney K(2007) Examining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achievement as part of an ecological model of development.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4(2), 340-369.
Parker FL, Boak A, Griffin KW, Peay L, Ripple C(1999) Parent-child relationship, home learning environment and school readiness. School Psychology Review 28(3), 413-425.
Pianta RC(1994) Pattern of relationship between child and teacher.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2(1), 15-31.
Pianta RC(1999) Enhancing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and teacher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ianta RC, Steinberg M(1992)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the process of adjusting to school.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57(1), 61-80.
Pianta RC, Nimetz SL, Bennett E(1997) Mother-child relationship,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social outcomes in preschool and kindergart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 263-280.